

전주 문화자산 38건 미래유산 확정

시, 삼양다방·행치마을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등 지정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령 다방인 삼양다방 등 유·무형 문화자산 38건이 미래유산으로 확정,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주시는 6일 동문거리 삼양다방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미래유산 지정 동판 제막식을 갖고 향후 미래유산을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미래유산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모든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0건의 유·무형 자산 중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총 38건이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미래유산을 살펴보면 △전주 종합경기장 △행치마을 △노송동 천사 △서화동 예술마을 △ 옛 백양메리야스공장 △남부시장 △삼천동 막걸리골목 △삼양다방 등 다양한 대상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시는 미래유산의 정보를 제공



전주시가 6일 동문거리 삼양다방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미래유산 지정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하고 알리는 전주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미래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유산 참여 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삼양다방을 포함한 전주 미래유산 38건은 전주의 근·현대 문화자산이자 시민이 기억하는 전주의 정체성, 관광객이 전주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것"이라며 "동판 표식 부착을 시작으로 전주 미래유산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향후 시민 주도로 미래유산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정상가동하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
"지역경제 몰락 이어져"
폐교된 서남대학교에
국립보건의료대 설립도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한국GM 군산공장의 정상가동과 폐교된 남원 서남대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6일 남원예촌에서 열린 제235차 월례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 성명서"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군산경제를 지역경제 몰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글로벌기업인 GM은 군산공장이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폐쇄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남대학교 폐교와 관련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대학교의 기존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설립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명지 회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서남대학교 폐교로 전라북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며 "군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성명서와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전북도 삼락농정위, 운영협의회서 건의문 채택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제1차 운영협의회' 및 '삼락농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2018년 위원회 활동과 삼락농정 포럼 운영계획(안)'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농업 농촌이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권리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등 헌법 반영 건의문'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유지와 식량주권 확립,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 보장, 농업인력 육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협의회 이어 오후에 개최된

'삼락농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정부 농정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역농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삼락농정위원들과 도 군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란 특강에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새정부 농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 하면서 지역단위 자치농정의 역할 확대와 타 작물 재배,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축산업 체질개선 등 정부의 주요정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정부 농정방향에 적극 대응하는 전북농정 추진과 전북만의 차별화된 농업농촌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에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삼락농정이 자치농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삼락농정위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나아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외신들 "김정은, 한국과 새 역사 원한다"

"대북특사, 올림픽 이후 모멘텀 잃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의 결단"

하고 원칙적인 입장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해부터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 로워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유안

그레이엄 소장은 "(대북 특사는)올림픽 이후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핵무기를 꾸

준히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미 본토 강타가 가능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사이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그레이엄 소장은 "문 대통령은 최소한 일종의 긴장감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개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나는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외신들은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여러 차례 만났으며, 2015년 10월에는 류원산(劉源山)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손을 잡고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는 방북한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만나지 않았다.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등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단은 6일 북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뉴시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CNN, 여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 "김 위원장이 한국과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우리 측 대북 특별사절단과의 만찬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활력 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

하림

하림그룹, 동북아 식품허브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One Health with Harim Food
Harim Food Complex
하림종합식품단지 기공식

2018. 02. 27

동북아 식품허브를 향한 Harim Food Triangle

- 익산 망성 (주)하림 익산공장**
Poultry Processing Complex
• 최첨단 도계 및 가공, 육가공 설비
•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시스템
- 익산 합일 하림종합식품단지**
Harim Food Complex
• 글로벌 Food & Agribiz 기업으로서 하림그룹의 비전을 실현하는 종합식품생산 및 첨단물류의 복합시설
- 익산 항공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하림식품 부지**
Foodpolis Sit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식품가공 플랜트 건립